

잡아함 113. 단색고경

날짜: 9월 6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42>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구라산에 계시었다. 때에 라다라는 시자 비구가 있었다. 그 때에 집을 나온 많은 외도들은 존자 라다에게 가서, 서로 인사한 뒤에 한 쪽에 물러 앉아 그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까닭으로 집을 나와 사문 고오타마 밑에서 범행을 닦는가.”

존자 라다는 대답하였다.

“나는 괴로움을 끊기 위해 집을 나와 세존 밑에서 범행을 닦는다.”

“너는 어떤 괴로움을 끊기 위해 집을 나와 사문 고오타마 밑에서 범행을 닦는가.”

“나는 <물질>의 괴로움을 끊기 위해 집을 나와 세존 밑에서 범행을 닦고,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의 괴로움을 끊기 위해 집을 나와 세존 밑에서 범행을 닦는다.”

때에 집을 나온 외도들은 존자 라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꾸짖고 떠나갔다. 그 때에 존자 라다는 모든 집을 나온 외도들이 떠나간 줄을 알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즉 ‘내가 아까 그렇게 말한 것은 과연 세존을 비방한 것이나 아닌가. 말답게 말했던가. 법답게 말하고 법과 법을 따르는 말이었는가. 또는 다른 사람이 와서 힐난하고 꾸짖을 때 지지나 않을까’고.

그 때에 존자 라다는 해질녘에 선정에서 깨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그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 쪽에 앉아 위의 일을 자세히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까 한 말에 잘못이나 없나이까. 과연 세존을 비방한 것이나 아니겠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이 와서 힐난하고 꾸짖을 때에 지지나 않겠나이까. 말답게 말하였나이까. 법답게 말하였고 법과 법을 따르는 말이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라다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진실을 말하였다. 여래를 비방하지 않았다. 말답게 말하였고 법답게 말하였으며 법과 법을 따르는 말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라다여, 물질은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을 끊기 위해 집을 나와 범행을 닦는 것이요,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은 괴로운 것이다. 그것들의 괴로움을 끊기 위해 집을 나와 범행을 닦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다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